

소련의 국제보건기구(WHO) 탈퇴 배경 재고

노경덕*

초록 이 논문은 1949년 단행된 소련의 국제보건기구(WHO) 탈퇴 결정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이를 기존 연구들처럼 냉전의 개시라는 국제정치 상황과 직결하기보다는 소련의 국내 사회, 특히 의학계의 분위기 변화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1949년은 카에르 사건 이후 소련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학계를 비롯한 소련 사회에서 기밀주의에 대한 집착과 반서방적 애국주의 물결이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즈다노프와 같은 소련 정책 입안자들은 학문 및 의학 지식의 서방 유출과 서방 학계의 소련 지식인들에 대한 침투 가능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WHO는 두 위협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WHO 탈퇴 결정으로 이어졌다.

주제어 소련, 국제보건기구, 정풍운동, 스탈린, 카에르 사건, 기밀주의, 소비에트 애국주의

1. 서론

1949년 2월 소련은 돌연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탈퇴를 선언했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탈퇴 이유로는 첫째, WHO가 질병 예방과 통제 및 의학적 성과의 전파라는 주요 과업의 달성에 실패한 것, 둘째, 가입국들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부교수

셋째 미국과 영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¹ 소련의 결정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퇴 논리 역시 매우 모호했던 탓에 동시대 많은 이들과 훗날의 학자들은 그 진정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한 세대가 흘러 이 문제에 주목했던 미국 학자 오사쿠이(C. Osakwe)는 “우리는 여전히 1949년 소련이 국제보건기구, 즉 설립 시에는 그들도 조력했던 조직에서 탈퇴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²

소련 WHO 탈퇴의 진정한 이유에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여러 동시대인 및 역사가들은 그 시기가 1949년, 즉 냉전이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를 미소 간의 관계 악화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관련짓곤 했다. 냉전은, 학파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점이 달리 잡히기는 하지만, 늦어도 1947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간주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³ 이런 시기 구분법에 근거하여 기존 학자들은 1949년 초 소련이 서방 ‘주도’의 WHO에서 탈퇴했던 것은 막 시작된 냉전이 고조되는 모습 중 하나였다고 믿는다.⁴ 자연스럽게 이러한 설명은 1957년 소련의 WHO 복귀 배경을 그 한 해 전 흐루쇼프의 반(反)스탈린 연설이 야기했던 정치 분위기

-
- 1 Alvin Z. Rubinstein (1964), *The Sovie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1953-6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02-103; Marcos Cueto, Theodore M. Brown, and Elizabeth Fee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2-65.
 - 2 Chris Osakwe (1972),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Union in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Political and Legal Analysis of Soviet Strategies and Aspirations inside ILO, UNESCO and WHO*, Leiden: A. W. SIJTHOFF, p. 111.
 - 3 Melvyn Leffler and David S. Painter (Eds.) (1994), *Origins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London: Routledge. 최근의 냉전 기원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노경덕(2024), 「냉전의 기원: 21세기 연구의 성과」, 『인문학술』 12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참조.
 - 4 Neville M. Goodman (1971),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and Their Work*, Edinburgh and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pp. 151-183; Elizabeth Fee, et al. (2016), “At the Root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Challenges: Politics and Region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6, no. 11, p. 1917.

변화, 즉 탈스탈린화, 해빙, 그리고 서방과의 평화공존 움직임 등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냉전 중심의 설명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문서적 증거에 근거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연구들 대부분은 특히 소련 내부 문건을 검토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설명은 현재까지 밝혀진 냉전사 연구의 구체적 성과, 특히 1940년대 말의 상황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과 부합하지 않는 몇몇 허점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WHO가 UN 산하 기구였음을 기억해 볼 때, 왜 소련이 1949년 이후에도 UN에는 계속 머물며 이를 적극적인 대서방 선전전의 장으로 활용했던 반면 유독 WHO에서는 탈퇴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⁵ 특히 WHO의 경우는 과거 식민지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구호를 중요 의제로 포함한 조직이었으며, 그만큼 당시 서방을 제국주의자로 채색하려던 소련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파간다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제기구였다. 따라서 냉전의 시작과 소련의 서방 '주도' 국제기구의 탈퇴라는 것은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둘째, 소련의 탈퇴 결정에 냉전의 중요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특히 이는 소련의 WHO 가입 역시 냉전이 이미 시작된 시기인 1948년에 이루어졌다는 엄연한 사실을 해명할 수 없다. 1948년이 이른바 베를린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초기 냉전의 최정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오히려 소련이 탈퇴를 선언했던 1949년은 1948년보다는 냉전의 대결적 양상이 덜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일찍이 미국의 국제관계사 전문가 술만이 온건의 시기로 묘사하기도 했던 1949년 당시, 소련은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⁶ 따라서 기존의 냉전 중심의

5 Ilya V. Gaiduk (2012), *Divided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United Nations, 1945-1965*,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6 Marshall D. Shulman (1965),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New York: Atheneum, p. 7.

설명은 1948년과 1949년 사이의 소련 대외정책의 기초 변화를 고려한다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본고는 소련의 WHO 탈퇴 원인을 냉전이라는 국제관계의 영향으로 설명했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소련의 국내 상황, 특히 그들 의학계의 분위기 변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소련이 WHO에 가입 논의를 시작하고 탈퇴를 결정할 무렵인 1947~9년은 밖으로는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문화계와 학계가 내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소련의 당과 국가는 코스모폴리티즘에 대한 투쟁(борьба с космополитизмом)이라는 명목 아래, 대대적인 애국주의와 반서방주의 운동,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반유대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소련 사회를 자극하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이 후기 스탈린주의의 정통성 회복 시도로 파악하기도 하는 이 즈다놉쉬나(Ждановщина), 즉 정풍운동은 그간 압도적으로 문화 예술계 및 몇몇 학문 분과만을 중심으로 조명되면서,⁷ 실상 이 운동의 발단이 의학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의학계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소련 의학계 인사들은 소련 내 그 어떤 전문 집단과 비교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 또는 호응했으며, 그 결과 이의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다.

소련 해체 이전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소련 의학계의 대형 스캔들, 이른바 카에르(КР) 사건은 그 시발점이었다. 소련의 의학

7 Harold Swayze (1962), *Political Control of Literature in the USSR, 1946-195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정풍운동의 여러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사료집도 출판되었다. А. Артизов, О. Наумов сост. (2002), Власть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Документы ЦК РКП(б) — ВКП(б), ВЧК — ОГПУ — НКВД о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е. 1917-1953,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Т. М. Горяева сост. (1997),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цензуры: Докумен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М.: РОССПЭН; А. Н. Яковлева ред. (2005), Сталин и космополитизм. 1945 — 1953. Документы Агитпропа ЦК, М.: МФД.

자 부부 클류예바(Н. Ключева)와 로스킨(Г. Роскин)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되었던 카에르 사건은 이들 부부가 항암 물질과 관련해서 발견한 의학적 지식을 미국의 일부 의학자들과 공유하려다 소련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질책을 받았던 사건을 지칭한다. 이 사건을 사실상 최초로 발굴한 에사코프(В. Д. Есаков)와 크레멘초프(N. Kremensov)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1947년 초 불거졌던 카에르 사건 역시 냉전의 사건으로 규정했지만,⁸ 본고는 이를 냉전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부터 소련 정치와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기밀주의 경향, 즉 적대적인 대외 의식에 기초해 국가 기밀의 유출 가능성에 민감하게 집착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소련 학계에서 이와 같은 기밀주의가 발현된 예는 구소련 문서고 자료에 따르면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맥락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던 1940년에도 이미 존재했었다.⁹

본고는 카에르 사건의 국내적 맥락과 그것이 일으킨 소련 의학계의 분위기 변화에 주목하면서 소련의 WHO 탈퇴 원인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려 한다. 카에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그 이후의 선전 역시 당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로부터의 캠페인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의학계 내부의 다양한 부류들, 즉 이데올로그들,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들, 순응 세력들 등의 역할이 합쳐져 소련 의학계는 소련이 WHO 탈퇴를 결정했던 1949년 무렵 다음의 뚜렷한 두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의학 연구 성과와 지식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이의 정치적인 함의에 민감해지는 태도였다. 둘째는 소련 의학의 성취를 애국주의

8 В. Д. Есаков, Е. С. Левина. Дело «КР». Из истории гонений на советскую интеллигенцию. // Кентавр. 1993. № 2, 3; Nikolai Kremensov (1995), "The 'KR Affair': Soviet Science on the Threshold of the Cold War",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17, no. 3, pp. 432-433.

9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ГАСПИ), ф. 17, оп. 117, д. 279, лл. 2-20. 1930년대 중반부터 소련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태평양연구소'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0년 소련 중앙당은 돌연 지리적 기밀의 노출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소련 내 관련 책임자를 문책했다.

적 감성을 바탕으로 강조하면서, 서방의 그것과의 차이를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1947년에 짝이 텃지만 1949년에 소련 내부에서 정점에 올랐으며, 소련 WHO 탈퇴에 중요한 지적, 심성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많은 기존의 학자들은 소련의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단순히 취급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지만, 1949년 탈퇴 당시 소련의 언론이 WHO의 ‘스파이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 그리고 미영의 조직적 주도권에 민감했던 것¹⁰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당시 실제 소련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카에르 사건에 대한 조명에서 출발한다. 카에르 사건이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 순수하게 냉전의 산물만은 아니었으며 냉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소련 사회의 기밀주의 전통에서 기인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함이다. 이 사건은 소련 의학계의 분위기 변화와 정풍운동 촉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 장에서 본고는 이 카에르 사건을 계기로 소련 의학계가 기밀주의와 애국주의라는 두 가지 경향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1949년이 시작될 즈음 그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 두 가지의 경향이 소련의 WHO 탈퇴 결정에 지적, 심성적 배경이 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카에르 사건과 소련의 기밀주의

소련 의학자 클류예바와 로스킨 부부는 1930년대 초부터 혈액 내 기생하는 편모충의 일종인 트리파노소마(trypansom)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실 그들의 초기 암 연구는 암의 발병 원인과 암세포 작용 등의 탐구에 집중했으나, 1930년대 전세계 의학계에서 활발했던 항생

10 *New Times*, 1950년 3월 29일 자, pp. 10-11.

제 연구에 영향을 받으면서 연구 초점이 항암 물질 개발로 점차 옮겨갔던 것이다.¹¹ 클류예바 부부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연구의 큰 진전을 이루었고 자연스럽게 소련 보건당국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클류예바 부부의 연구는 1941년 6월 이른바 대조국전쟁의 발발로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연합국의 승리로 기울었을 무렵인 1944년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전부터 이들 부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련 보건부 차관 파린(В. Парин)은 클류예바 부부가 당시 동맹국이던 영국으로부터 트리파노소마를 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도 했다. 클류예바와 로스킨은 연구 재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식된 육종을 가진 흰색 실험 쥐에 트리파노소마를 주입한 결과 종양의 성장이 저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정도는 트리파노소마 주입의 기간에 비례했으며, 7~8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쥐에 주입하자 마침내 종양 성장이 멈추는 사례들이 목도되었다. 클류예바 부부는 미생물 표본, 즉 ‘카에르 표본’을 추출할 수 있었고, 곧 불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표본이 인체에는 무해하며 특정 몇몇 경우에는 종양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¹²

클류예바 부부는 1946년 초부터 실험 결과 일부를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아직 미소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수많은 인적 교류가 가능했던 당시,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서방, 특히 미국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 암 환자들 사이의 반응은 뜨거워서 수많은 문의가 미 국무부로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 스미스(Walter B. Smith)는 직접 클류예바의 연구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련 의학 학술원 부원장을 통해 당시 소련 보건부 장관 미테료프(Г. Митерёв)에 전달

11 Nikolai Kremntsov (2002), *The Cure: A Story of Cancer and Politics from the Annals of the Col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42.

12 Nikolai Kremntsov (1997), *Stalinist Sc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31-132.

했으며,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도 했던 미테료프는 이를 기꺼이 승낙했다. 1946년 6월 20일 스미스는 직접 클류예바의 연구실을 둘러 볼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클류예바 부부의 연구에 대한 미국 의학계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며칠 후, 스미스는 미테료프에게 미소 의학계 공동 암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공동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주로 재정과 물적 지원을 담당하고, 클류예바 부부가 해당 연구를 주도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었다.¹³ 뜻밖의 지원 약속에 크게 고무된 부부는 직접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¹⁴

곧이어 1946년 가을, 미소 의학계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두 명, 머드(S. Mudd)와 레슬리(R. Leslie)가 클류예바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클류예바 부부의 연구를 비롯한 소련 의학의 성과에 감흥을 얻은 나머지 미소의학협회(the American-Soviet Medical Society)를 창설해 운영해 온 터였다. 한편 미국의 공중위생국장(the US Surgeon General)은 클류예바 부부의 연구를 미국 의학계에 보다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소련 보건부 차관 파린을 미국에 초청했다. 이에 따라 1946년 10월 말 미국을 방문한 파린은 클류예바와 로스킨이 곧 출판할 예정인 연구서의 원고를 가져와 그중 일부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파린은 현대 의학이 가지는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련과 서방, 특히 미국과의 의학 교류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더해서 그는 미국의 암 연구 전문가들을 소련에 초청할 계획도 밝혔다. 그 계획에는 클류예바 연구실 방문 및 시찰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¹⁵

13 Nikolai Kremmentsov (1997), pp. 132-133.

14 В. Д. Есаков, Е. С. Левина (1993), pp. 56-57; Diane P. Koenker and Ronald D. Bachman (1997), *Revelations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p. 257.

이렇듯 1946년 말까지 클류예바 부부의 항암 물질 연구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였다. 하지만 1947년 1월 말 소련 정치권이 이들 부부의 대외 교류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당시 소련의 사실상 2인자이자,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데올로기, 학문, 지식인 문제를 주관했던 안드레이 즈다노프에서 나왔다. 그는 먼저 클류예바를 중앙당에 직접 소환해 이 부부의 국제 교류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핵심은 이토록 중요한 의학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미국 쪽으로 손쉽게 넘어가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즈다노프가 보기에 이는 명백한 국가 기밀 수준의 정보로서, 클류예바 부부와 같은 개인이 민간 차원에서 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곧 관련자들, 즉 로스킨, 미테료프, 파린 등이 줄줄이 중앙당으로 소환되었으며 클류예바와 유사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이 심문 과정이 끝난 후, 같은 달 스탈린이 직접 참석했던 당중앙위원회 회의는 이를 카에르 사건이라 명명하고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클류예바 부부 책의 원고를 미리 공개했던 보건부 차관 파린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건부 장관 미테료프의 해임도 제청했다.¹⁶

‘탈소련’ 세대 러시아 과학사가 크레멘초프는 카에르 사건의 냉전적 맥락을 강조하며 즈다노프와 소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즈다노프의 문제 제기는 클류예바 부부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웠던 것이었고, 그들은 충분히 억울할 만했다. 크레멘초프는 클류예바 부부가 미국과 활발히 의학 교류를 계획했던 1946년 가을, 즈다노프가 이미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즈다노프는 1947년 1월 말 돌연 태도를 바꾸어 클류예바 부부의 교류 시도를 반국가 행위로 몰아갔으며, 그것은 당시 소련 지도

15 Nikolai Kremmentsov (1997), p. 134.

16 Nikolai Kremmentsov (1995), pp. 432-433.

부가 스스로 키워가던 냉전적 사고가 발현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즉, 크레멘초프에 의하면, 클류예바 부부에 대한 공격은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소련 사회를 단속하고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자 하는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다.¹⁷ 하지만 크레멘초프가 제시한 증거들, 이를테면 과린이 미국에 머물던 기간 동안 그 당시 역시 워싱턴 디씨에 있던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에게 클류예바 부부 원고 발표 가능성을 문의하고 허락받았던 것 등은 1946년까지 당 지도부가 클류예바의 의학 지식 교환 내용을 자세히 아는 상태에서 추가 교류까지 독려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는 1946년 당시 그들이 그 교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즈다노프 심문의 핵심이 교류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미국으로 넘어간(?) 정보의 내용과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태도를 정치적 술수로만 규정하기에 크레멘초프가 제시한 증거는 충분한 것이 못 된다. 즉, 여전히 1946년까지 소련 당국은 클류예바 부부가 공유한 지식의 깊이와 범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도 높다. 실제로 이후 클류예바는 1946년 당시 소련 보건부가 자신의 연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⁸ 1947년 1월에서야 정밀 내사를 통해 이미 공유된 의학적 지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즈다노프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으리라는 가설 역시 타당할 수 있다.

여하튼 즈다노프는 카에르 사건을 계기로 의학계를 비롯한 소련 학계 전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판단은 이미 러시아혁명 직후부터 ‘자본주의 적들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을 키워오며 외부 세계의 적대성에 민감했던 소련 사회의 기밀 집착, 즉 기밀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악명 높았던 1930년대 말 대숙청에서 가장 흔했던 죄목 중 하나가 외국, 즉 서방과의 ‘불온한’ 접촉이었던 것은 상기될

17 Nikolai Kremmentsov (1995), p. 433.

18 Chris Burton (2000), “Medical Welfare during Late Stalinism: A Study of Doctors and the Soviet Health System, 1945-53”, Ph.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p. 342.

필요가 있다.¹⁹ 즈다노프의 생각에, 대숙청 시기에 날이 서 있던 기밀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더졌다. 그것은 미국 및 영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붉은 군대 해외(?) 진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는 것이다. 카에르 사건을 계기로 즈다노프는 이 같은 기밀주의를 다시금 소련 사회에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며, 그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학계, 즉 국제 교류 가능성이 큰 지식인들이 절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시각에서 볼 때, 소련 지식인들은 학문적 정보와 지식이 가지는 기밀성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²⁰

사실 이와 같은 기밀성에 대한 집착은 당대의 소련공산당 지도부가 대부분 공유했던 것임은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혁명 이후 소련 정치권의 전통이었다. 즈다노프만의 특유성은 이런 인식에 소비에트 애국주의 및 러시아 민족주의적 성격을 덧붙였다는 데에 있었다. 카에르 사건 당시인 1947년 초의 시점에서, 즈다노프와 선전선동부는 이미 후대 학자들이 이른바 정풍 운동이라 불렀던 학문 및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차였다. 1946년 8월 레닌그라드 시인 조셴코(М. Зошенко)와 아흐마토프(А. Ахматова)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은, 러시아혁명 이전 러시아 제국 시기 만연했던 후진성 의식 및 서방과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굴종적 태도나 동경심을 타파하자는 주장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²¹ 즈다노프에 의하면, 카에르 사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학계와 문화계가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

19 J. Arch Getty and Oleg V. Naumov (Eds.) (1999), *The Road to Terror: Stalin and the Self-Destruction of the Bolsheviks, 1932-193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 J. Chase (Ed.) (2001), *Enemies within the Gates?: The Comintern and the Stalinist Repression, 1934-193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 Kees Boterbloem (2004), *The Life and Times of Andrei Zhdanov, 1896-1948*,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p. 305-306.

21 David Brandenberger (2002), *National Bolshevism: Stalinist Mass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Modern Russian National Identity, 1931-195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86-187.

거나 서방과 경솔히 공유하는 관행은 위와 같은 서방에 대한 의존 심리와 관계 깊은 것이었다. 즉, 그것은 학문과 지식 분야에서 더 선진적인 서방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신해 즈다노프는 러시아 역사에서 나온 위대한 성취를 망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²² 이렇게 기밀주의와 애국주의라는 각기 전혀 다른 집단 감성은 즈다노프의 논리 속에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기밀을 철저히 지키고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학문 및 문화 운동이 소련에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본고에서 즈다노프의 현실 인식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냉전 시대 일부 서양 학자들처럼 이를 전체주의 국가의 학계 및 문화계 탄압 시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하지만 말이다.²³ 본고의 관심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즈다노프가 카에르 사건을 소련 의학계의 일회적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고 소련 지성계 전반에 기밀주의와 애국주의를 독려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클류예바 부부를 이른바 명예 법정(суд чести)에 세우는 방법을 통해 그 의도를 구체화했다. 명예 법정은 원래 러시아 제국 시기 군대나 대학 등에서 널리 시행되던 전통으로서,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도덕한 행실 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도덕적 심판을 집단적으로 내리는 관행을 지칭했다.²⁴ 즈다노프는 이 전통을 그가 1930년대 말부터 소련 학계와 공산당 당원들의 자기반성과 재교육을 위해 추진해왔던 이른바 비판 및 자아비판 운동²⁵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예 법

22 A. H. Яковлева ред. (2005), p. 125. 즈다노프는 “화학 분야 로모노소프의 위대한 발견들은 라부아지에에게로, 위대한 러시아 과학자 포포프의 라디오 발명은 이탈리아인 마르코니에게로, 러시아 과학자 야블로치코프의 전구 발명도 외국인들에게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라고 개탄했다.

23 대표적으로 Leonard Schapiro (1960),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pp. 528-532.

24 Nikolai Kremmentsov (1997), pp. 136-137.

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받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과오라고 판정될 경우, 스스로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재교육 과정을 마친다는 것이 즈다노프 생각의 골자였다. 물론 명예 법정이니 만큼, 그것이 소련 사법부의 권역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 자발적 형식을 취하는 공개 심문의 장일 것이었다. 따라서 명예 법정은 중앙당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최 요구가 올라오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했다. 카에르 사건의 경우, 이는 해당 부서인 소련 보건부에 소속된 일반 당원들, 즉 소련 의료계 인사들이 보건부 수뇌부에 명예 법정 소집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했다. 보건부는 이 신청을 승인했으며 곧 명예 법정 개최 준비위원회가 꾸러졌다.

명예 법정은 소련 의료계의 일반 당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준비 과정에 즈다노프의 영향력이 막대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혁명 이후 열리는 최초의 명예 법정이니 만큼 즈다노프는 그 준비 과정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알려졌다.²⁶ 특히, 법정 심문 위원에 소련 보건 분야의 태두 세마쉬코(Н. Семашко)²⁷와 향후 보건부 책임자에 오르게 될 코브리기나(М. Ковригина) 등 당시 소련 의학계의 유력자들을 배치한 것은 즈다노프의 입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준비가 마무리되었던 1947년 6월, 모스크바에는 클류예바와 로스킨 사건 공개 심문을 위해 의사와 의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수백 명의 청중이 초청되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3일 동안 매일 법정 기록은 소련 공산당 정치국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 날 명예 법정은 클류예바와 로스킨의 행위를 ‘소련의 국익을 훼손한’ 반국가적, 반애국주의적인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²⁸

25 Alexei Kojevnikov (2000), "Games of Stalinist Democracy: Ideological Discussions in Soviet Sciences, 1947-52", *Stalinism: New Directions* (Ed. by Sheila Fitzpatrick), London, Routledge, pp. 150-153; Kees Boterbloem (2004), p. 181.

26 Kees Boterbloem (2004), pp. 295-296.

27 소련 보건 정책에서 세마쉬코의 위치는 국내에 소개되었다. N.A. 세마쉬코(2017), 신영진·신나희 역, 『소련의 건강 보장』, 건강미디어협동조합.

크레멘초프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카에르 사건을 지식 사회에 대한 당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시도로 해석하며 이듬해인 1948년에 벌어질 그 악명 높은 리센코 사건과 유사한 틀에서 바라보았다.²⁹ 하지만 리센코 사건에서는 당시 소련의 주류 생물학 학계를 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방향 재정립이라는 목적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데 비해,³⁰ 카에르 사건의 경우는 그들 부부의 학문적 성과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카에르 사건 명예 법정 문건에 흐르는 주요 테마는 특정 학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개입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것은 기밀에 대한 민감성 독려, 즉 기밀주의에 대한 환기로 점철되었다. 클류예바와 로스킨이 저지른 ‘과오’의 주 명목은 그들의 의학적 발견 누설이 어떠한 정치적, 안보적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법정은 의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급에서 기밀을 다루는 소홀함과 인적 관리 능력 부족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보건부 장관 미테료프는 카에르 사건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 부주의하게 접근했다고 특별히 비판받았다. 그의 이 같은 ‘부주의함’은 소련 의학의 학문적 흐름과 그 변화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보건부의 학술 위원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것은 의학 연구와 발견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 명예 법정의 판단이었다.³¹

카에르 사건에서 당국이 기밀주의에 집중했다는 점은 명예 법정 종결

28 РГАСПИ, ф. 17, д. 258, оп. 122, л. 13.

29 Nikolai Kremntsov (1997), Chris Burton (2000), Benjamin Zajicek (2017), “A Soviet System of Profession: Psychiatry, Professional Jurisdiction, and the Soviet Academy of Medical Sciences, 1932–1951”, *Russian and Soviet Health Car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 by Susan Grant), London: Palgrave.

30 David Jarovsky (1970), *The Lysenko Affai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97–111.

31 РГАСПИ, ф. 17, д. 258, оп. 122, лл. 8–12, Chris Burton (2000), pp. 341–342.

직후에 소련 최고인민위원회가 ‘국가 기밀의 누설에 대한 책임’ 법을 제정했던 사실에서 방증되기도 한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로 판단되는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교정 노동 수용소에서 8년에서 12년까지 형을 사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 곧이어 내각위원회(Совмин)는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군사나 정치 관련 기밀 외에도, 의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과학, 기술 그리고 국가 경제 영역에서의 발견, 발명, 기술적 향상, 연구 그리고 실험 결과’가 포함되었다.³²

수백 명의 청중이 재판 과정을 직접 관람했고, 스탈린 지도부는 그 경과에 대해 예의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법정의 판결 결과는 흥미롭게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자칫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표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도부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이른바 마셜계획이 이제 막 발표되었던 시기로서, 아직 소련은 서방 세계와의 선린 관계 유지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니었다.³³ 하지만 이 같은 국제정치적 맥락과는 별개로, 즈다노프와 선전선동부의 현실 인식은 카에르 사건과 명예 법정을 그대로 묻히게 만들지는 않았다. 곧 즈다노프는 이 사건의 명예 법정을 모델로 소련의 전 학계와 문화계 분야에 유사한 회합을 개최할 것을 독려하는 서한을 국가기관과 중앙당을 넘어 지방당에까지 내려보낸 것이다. 즈다노프가 직접 집필하고 스탈린이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비밀 서한은 소련 지식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즈다노프 생각의 두 축, 즉 기밀에 대한 민감성 독려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양, 달리 말해 서방 문화에 대한 의존

32 Harriet L. Moore (Ed.) (1947), *American Review of the Soviet Union* 8, The American Russian Institute, pp. 86-88.

33 Scott D. Parrish and Mikhail M. Narinsky (1994),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47: Two Report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9.

성 극복이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방의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저자세와 굴종 의식이 일정 부분 퍼져있는 한,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소비에트 애국주의… 외국 첩보 기관의 간교한 수단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 그리고 소비에트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소련 지식인 교육이 될 것이다.³⁴

이 비밀 서한이 각 지역당에 전달된 이후, 소련 학계와 문화계의 여러 분야에서 카에르 사건 명예 법정과 유사한 명예 법정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 물결은 그 후 약 2년간, 즉 1949년 중엽까지 잠잠해지지 않았다.³⁵

카에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여타 분야의 명예 법정 개최 물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카에르 사건 명예 법정이 끝난 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그 책임 부서인 소련 보건부에는 사정의 바람이 불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출원했는지는 공적 문서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작된 시점과 주요 내용으로 판단컨대, 이 사정 바람은 카에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었으며 즈다노프와 선전선동부가 일으킨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된 중앙 사정위원회는 소련 보건부 소속 주요 관료 26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작업 중 많은 부분은 행정가 자질이 나, 정치적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이력과 출신성분을 탐문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심문 내용 중에는 의미심장하게도 의학 자료와 학술 논문을 자세히 점검하느냐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의학 지식과 연구 결과가 가질지 모르는 기밀적 성격에 대한 더 철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중앙 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부는 여태까지 이들이 정치적

34 A. H. Яковлева ред. (2005), pp. 126-127.

35 Chris Burton (2000), pp. 337-338.

인 중요성을 가진 문건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 사정 바람에 직접 타격을 받아 실직한 이들은 전체 대상자 중에 6%에 불과했으며, 그 6% 역시도 나치 부역 경력 등 전혀 다른 이유로 숙청당한 경우였다.³⁶ 하지만 의학 지식의 기밀성을 더 철저히 인식하라는 당의 메시지는 소련 보건부와 의학계 전반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었다.

3. 애국주의 운동으로의 확대

카에르 사건을 기회로 기밀주의와 더불어 즈다노프가 독려하려 했던 애국주의는 당시 범사회적인 수준의 캠페인 정풍운동의 흐름을 타고 곧 러시아 학계와 문화계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 거대한 애국주의 물결이 소련의 지식 사회를 뒤덮는 과정에서 목도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인적 교체였다. 러시아 학문의 위대성이나 러시아 학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러시아 출신 신진 인력들을 중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연구 및 활동 공간을 잃게 되었다. 당시 소련 최대의 학술 연구소 세계경제세계정치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이 러시아의 학문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³⁷ 이런 물결은 특정 학계 내부의 학파 또는 개인 간의 묵은 반목이나 경쟁심 때문에 더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했다.³⁸ 애국주의는 경쟁 상태에 있던 상대방 진영에 유용한 공격 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대개 외국 학계와의 접촉이 더 빈번했거나 그들과 연구 방법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던

36 Chris Burton (2000), pp. 343-345.

37 A. H. Яковлева ред. (2005), p. 314.

38 David Joravsky (1970), Benjamin Zajicek (2009), "Scientific Psychiatry in Stalin's Soviet Union: The Politics of Modern Medicine and the Struggle to Define 'Pavlovian' Psychiatry, 1939-1953", Ph.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이들이 이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애국주의 물결의 확산이 몇몇 서양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소련 학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또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강화 수단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물결 때문에 소련의 학문 내용 자체가 변했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변했던 것은 학계 주도 인물들의 면면, 그리고 학문을 포장하는 외적 방식이었다. 일부 서양 학자들은 종종 이 과정을 교조주의로의 복귀로 해석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³⁹

소련 의학계는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도 이런 애국주의 물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였다. 그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소련 유전학 분야의 거대 스캔들 리센코 사건이 소련 의학계와 접목되면서 일어났던 이른바 ‘의학 리센코주의’ 움직임이었으며, 둘째는 소련이 낳은 세계적인 생리학자 파블로프에 대한 사회적 숭배와 찬양 운동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48년 8월 전소련 농업경제 과학 아카데미 세션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부정하고 획득형질의 유전 가능성을 시사했던 리센코(Г. Лысенко)가 소련 원예학자 미추린(И. Мичурин)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권위를 획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악명 높았던 이 세션 이후 생물학과 농학 분야에서는 이른바 리센코주의 열풍이 일었다. 소련 의학계 역시 리센코의 전공이 의학 관련 분야였던 유전학이었던 만큼, 그 파장에 곧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생물학과 농학 분야와는 달리, 의학 분야에서의 리센코주의는 과학 지식과 법칙을 둘러싼 논쟁을 몰고 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본고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도, 의학 교육의 애국주의적 재편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 시작은 1948년 9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이 의학 교육에서 리센코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부터였다. 여기서 조

39 Leonard Schapiro (1960), pp. 528-532.

조직국은 리센코의 교훈이 의학적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은 러시아적 의학 교육, 즉 서방과는 구별되는 의학 교육을 암시할 뿐이었다. 러시아적 의학 교육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애국주의 물결과 관련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조직국은 소련의 의학 연구소들에서 그간 실시해온 생물학 교육을 특별히 비판하고 나섰다. 당의 평가에 의하면, 의학 연구소 생물학 교육 담당자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왔다. 그 방향이란 미추린, 즉 러시아 과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의 평가는 의학 연구소 1학년 핵심 과목인 ‘일반 생물학’ 교과서의 대대적인 수정 요구로 귀결되었다. ‘일반 생물학’ 과목은 평범한 생물학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등 의학 교육의 근간이었기에, 조직국은 이 과목의 교과서 개정과 강사 교체가 러시아적 의학 교육 확립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조직국이 기존 교과서들을 점검한 후 내린 결론은 이들이 외국, 즉 서방의 과학에는 번지르르한 레퍼런스를 달았지만, 러시아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것이었다. 즉, 당이 보기에, 기존 교과서는 멘델, 모건(Thomas H. Morgan), 바이스만(August Weismann)에 의지하면서 미추린의 유물론적 관점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⁴⁰

조직국의 지적은 ‘일반 생물학’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직학과 신경학과 같은 주요 의학 분야의 교육도 재조직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학 실습 역시 서방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병리 증상들, 암, 결핵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 역시 리센코의 가르침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세마슈코는 이런 ‘의학 리센코주의’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색채로 채색하려 했지만,⁴² 조직국, 즉 당 중앙위원회가

40 Chris Burton (2000), pp. 347-348.

41 Chris Burton (2000), pp. 348-349.

42 세마슈코는 리센코주의의 핵심을 ‘자연적 발전’과 ‘사회-역사적 발전’을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의학에서의 반리센코주의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요소를 부정하는 부르주아적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는 소련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것이며,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던 1920년대 말, 즉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애국주의와 반서방주의적 감성이었다. 조직국의 의도는 카에르 사건 이후 새로이 보건부 장관이 된 스미르노프(Е. Смирнов)의 의학 교육 개혁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그의 개혁은 우선 당시까지 가장 많이 쓰였던 생물학과 생리학 분야의 교과서들 중 4종을 폐기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중에는 저명한 의학자 블라헤르(Л. Я. Бляхер)의 『일반 생물학』이 포함되었다. 폐기 이유는 이 교과서들이 미추린주의 연구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교과서 저자들이 포함된 인사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블라헤르는 제2 모스크바 의학 연구소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당시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의학 연구소였던 제1 레닌그라드 의학 연구소의 카나예프(И. И. Канаёв)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신세가 되었다. 폐기된 교과서들 대신 쓰일새 교과서의 집필진은 모두 미추린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로 채워졌다. 그중 특히 미추린 삼인방이라 불렀던 마흐코(В. В. Маховко), 마카로프(П. В. Макаров), 코스트류코바(К. Ю. Кострюкова) 등이 집필한 새로운 일반 생물학 교과서가 1949년 검정 과정을 거쳐 1950년에 마침내 등장했다. 책 내용에 포함되었던 ‘반동적 바이스만주의’라는 표현은 이 애국주의적 교과서와 서방 교과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⁴³ 물론 캐나다 출신 역사학자 버튼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 같은 의학 리센코주의가 순수 학문적인 차원과 임상의 영역에서 소련 의학을 변화시킨 부분은 크지 않았다. 버튼에 의하면, 리센코주의는 “소련 의학을 탈전문화시키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 (의료) 복지 체제 건설에 심각한 도전이 되지 못했다.”⁴⁴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1940년대 말엽에는 소련 의학계의 주요 인물 교체와 외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그 지배적 분위기를 애국주의로 물들였던 것은 사실이었다.⁴⁵

문화혁명과 스탈린 혁명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Chris Burton (2000), p. 349.

43 Chris Burton (2000), pp. 349-352.

44 Chris Burton (2000), p. 355.

45 이런 상황은 다른 분야인 음악계도 마찬가지였다. 음악계 역시 음악적 전문성은 유지

소련 의학계에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데에 의학 리센코주의보다 더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은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블로프 숭배 운동이었다. 이른바 ‘파블로프 현상’을 다루었던 윈드홀츠(G. Windholz)나 자히첵(B. Zajicek) 등의 서양 학자들은 이 운동을 통해 소련 의학계에서 파블로프의 적자가 가려지는 과정, 즉 의학계 인사들과 학파들 사이의 경쟁, 갈등, 타협 등을 자세히 추적했지만,⁴⁶ 본고는 파블로프 현상이 소련 의학계 전반에 미친 효과, 즉 애국주의적 분위기와 반서방 감성의 고양에 더욱 주목한다. 1949년 초 소련 정부의 영화부(Министерство кинематографии)는 ‘과학자 이반 파블로프’라는 영화제작이 완료되었음을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영화는 파블로프의 이데올로기적 신념, 즉 ‘생리학 분야에서의 반동적인 흐름에 대한 파블로프의 투쟁 및 이상주의 유사과학에 대한 그의 혐오’를 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영화가 공개된 후 나온 언론의 반응은 영화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애국주의적 주제에 쏠렸다. 실제로 영화 속 파블로프의 첫 대사는 “과학도 조국을 가지는 것이며, 과학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러시아인이며 내 조국은 여기다”였다.⁴⁷ 영화 속 주인공이 전달했던 가장 일관적인 메시지는 소비에트 체제가 마련해준 혜택, 특히 과학 연구 조건의 호전이었지만, 그 체제는 사실상 러시아 국가를 의미했다.

영화 공개 이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파블로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했지만, 그 주요 주제가 애국주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Kiril Tomoff (2006), *Creative Union: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Soviet Composers, 1939–195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46 George Windholz (1997), “1950 Joint Scientific Session: Pavlovians as the Accusers and the Accused”,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33, no. 1, pp. 61–81; Zajicek (2017), pp. 107–110.

47 Ethan Pollock (2008), *Stalin and the Soviet Science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42–143.

의 주요 인물 수슬로프(М. Суслов)가 맡게 되었다. 스탈린 시대에서 파블로프와 같은 역사적 위인에 대한 탄생 주년을 기리는 작업은 흔히 보이는 현상이었다.⁴⁸ 하지만 수슬로프 같은 당 중앙위원회의 유력 정치인이 직접 조직을 책임졌던 사례는 드물었으며, 이 사실은 사안이 가진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파블로프 탄생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파블로프의 업적을 기리고 재평가하는 수많은 학술대회와 기념식의 거행, 파블로프 저작들의 재출간, 생리학 분야의 소련 최고 권위 상으로 파블로프 메달 제정, 파블로프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역사가 폴락(E. Pollock)에 의하면, 이 계획들 중에는 파블로프의 출신지 라잔(Рязань)을 그의 이름을 따라 개칭하는 것도 포함되었다.⁴⁹

이 사업들에 흘렀던 공통된 기조는 러시아 애국주의였다. 파블로프의 탄신일 당일 소련 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1면 사설을 통해 이를 기념했는데, 그 제목은 ‘러시아 인민의 대단한 아들’이었다. 바로 그날, 이와 같은 애국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아들이자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유리 즈다노프(Юрий А. Жданов)는 스탈린에게 소련 의학계의 반애국주의를 고발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핵심 내용은, 소련의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일반의학’ 분야에서 반파블로프 경향이 기승해 왔으며, 이들은 파블로프의 가르침을 낡고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분야에 반애국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애국주의적으로 ‘서방의 부르주아 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의 대표적 예로 유리 즈다노프는 현대 생물 행동 과학(biobehavioral science)의 창시자 중 하나인 세계적 학자 베리타슈빌리(И. Бериташвили)를 꼽는 강수를 두었다. 유리 즈다노프는 또한, 소련 생리학의 대표자 오르벨리(Л. Орбели) 역시 외국 생

48 Karen Petrone (2000), *Life Has Become More Joyous, Comrades: Celebrations in the Time of Stali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49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Ethan Pollock (2008), p. 144.

리학자들의 영향 아래 심각한 ‘반파블로프적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리 즈다노프는 당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의학 리센코주의’의 영향을 받은 듯, 의학 연구와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학 고등교육의 커리큘럼을 파블로프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애국주의를 소련의 의학 연구자 및 의사들에게 강조한다는 의미로 스탈린에게 거대 학술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실제로 1950년 ‘파블로프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알려질 소련 의학회의 학술대회는 파블로프의 유산을 지키자는 러시아 애국주의의 물결로 뒤덮이게 될 것이었다.⁵⁰

‘의학 리센코주의’와 애국주의로 집결된 파블로프 현상을 겪으면서, 소련 의학계는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애국주의, 즉 반유대주의가 만개하는 주요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1947년 후반기부터 등장했지만 1949년에 정점에 이르렀던 이 흐름은 나치 세력을 사실상 그들만의 힘으로 격퇴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된 러시아인들이 그들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물론, 소련 정계에서 공식적으로 반유대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것은 적국 나치의 용어였기 때문이다. 대신 소련에서 유대주의는 코스모폴리티즘(космополитизм)으로 불렸다.⁵¹ 세계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용어는 반러시아주의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유대인들은 학계와 문화계에서 러시아인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들과 일종의 경쟁 관계를 이루었던 탓에, 자연스럽게 반러시아주의의 핵심 세력으로 몰리게 되었다.⁵² 코스모폴리티즘이 소련 의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7년이었지만, 그것이 의학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49년 1월 당 중앙위원회가 ‘뿌리 없는 코스모

50 Ethan Pollock (2008), pp. 144-145.

51 A. H. Яковлева ред. (2005), p. 10.

52 고가영(2014),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뿌리 없는 코스모폴리티즘’과의 전쟁」, 『역사문화연구』 4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pp. 284-285.

폴리티즘'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문화계와 학계를 표적으로 시작한 후 부터였다. 소련 의학계 역시 '부르주아 코스모폴리티즘'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신문 사설이 등장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⁵³

일부 서양 학자들과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 학자들은 반코스모폴리티즘 운동의 역사를 대체로 반유대주의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 사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즉 인권사의 관점에서 서술했다.⁵⁴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피해를 정당화하고 묻어버렸던 당시 소련 사회와 지성계 전반의 애국주의 분위기였다. 1949년 제2 모스크바 의학 연구소 국소해부학과장이었던 유대계 의사 게셀레비치(А. Геселевич)가 '뿌리 없는 코스모폴리탄(космополит)'으로 몰려 해직되었을 때, 그 명목은 그가 러시아 의학의 성과와 지식을 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당시 애국주의에 휩싸여 있던 소련 의학계는 별다른 논란 없이 그의 해직 사유를 받아들였다.⁵⁵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련의 의사나 의학 관계자들은 유대계 의사 비중이 컸던 연구소나 의학 기관을 겨냥해 투서 행위(도нос)를 활발히 펼치기도 했다. 1948년 말부터 1950년까지 당 중앙위원회에 도착한 여러 투서들 중에는 소련의 대표 의학 연구소 중에 하나였던 레닌그라드 전연방 실험 의학 연구소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었다. 투서에 따르면, 그 연구소에는 '새로운 리센코주의 소비에트 과학'을 거부하는 '유대-메이슨 도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저명한 유대계 의사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투서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그가 사실상의 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며 유대인들에게 채용 및 인사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었다.⁵⁶ 물

53 Chris Burton (2000), p. 364.

54 А. И. Ваксберг (1995), Сталин против евреев: секреты страшной эпохи, М., Liberty Publishing House; Г. В. Костырченко (2003), Тайная политика Сталина: власть и антисемитизм, 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Yuri Slezkine (2004), *The Jewis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고가영(2014).

55 Vladimir Golyakhovsky (1984), *Russian Doctor*, New York: St. Martin, pp. 9-12; Chris Burton (2000), p. 364.

론 이와 같은 악의적 투서들의 진위가 어땠는지를 가리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 투서 행위가 반코스모폴리티즘 시기 소련 의학계의 극단적 애국주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 준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가 투영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1949년 소련 보건부가 의사들의 근무 태만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었다. 소련 보건부는 모스크바 소재 신경정신병학 연구소 소속 의사들에 대한 사정을 시작으로 이를 곧 소련 전역의 모든 의학 연구소들로까지 확대했다. 버튼의 계산에 의하면, 1952년까지 약 3년간이나 이어졌던 이 작업의 결과, 총 2,000명의 의사가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 해임의 명목 중에는 '적합한 능력 부족,' '게으름'처럼 일반적인 것도 있었지만, '관점 결여'라는 모호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관점이 반코스모폴리티즘, 즉 러시아 애국주의를 의미함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계에 비해 유대계 의사의 해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실상 이 사정 작업이 유대계 의사들에 대한 인적 청소 작업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방증되었다.⁵⁷

4. 결론

1949년 소련이 WHO 탈퇴를 발표하고 그 후 소련 언론이 이에 대한 논평을 쏟아내었을 때, 그 탈퇴 원인과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후대의 학자들 역시 소련의 탈퇴를 냉전 시대 전형적인 스탈린의 비타협적, 대결적 외교의 일환으로 쉽게 치부하며 자세히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소련이 주장했던 WHO의 스파이적 성격과 서방의 기관

56 Chris Burton (2000), p. 370.

57 Chris Burton (2000), pp. 379-380.

독점이라는 것⁵⁸이 역사적 진실에 얼마나 근접한 평가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리 생각할 만한 지적, 문화적 분위기를 내적으로 스스로 조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카에르 사건 이후 대두한 소련 의학적 내부의 분위기, 즉 기밀주의의 강조와 애국주의 및 반서방 정서의 물결은 결국 WHO라는 서방 의학의 보편적 틀 속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에 소련이 머무는 것을 매우 어렵게 했다. 소련의 시각에서 볼 때 WHO가 규정했던 기준, 범주, 단위 등은 서방 중심적이었으며, 여기에 따르는 것은 서방 의학에 대한 종속이나 굴종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또 한편으로 WHO에 남는 것은 소련의 의학적 성과, 특히 기밀에 해당하는 지식이 서방 세계에 유출될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49년 소련의 WHO 탈퇴는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만은 아니었으며, 소련 사회 내부의 상황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자료

- 러시아국립사회경제사 문서고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ГАСПИ)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철.
- Артизов, А. О. Наумов сост. (2002), Власть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Документы ЦК РКП(б) — ВКП(б), ВЧК — ОГПУ — НКВД о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е. 1917 — 1953,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 Горяева, Т. М. сост. (1997),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цензуры: Докумен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М.: РОССПЭН.
- Яковлева, А. Н. ред. (2005), Сталин и космополитизм. 1945 — 1953. Документы Агитпропа ЦК, М.: МФД.
- Harriet L. Moore (Ed.) (1947), *American Review of the Soviet Union* 8, The American

58 Harold K. Jacobson (1963), *The USSR and the U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South Be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 143.

Russian Institute.

Diane P. Koenker and Ronald D. Bachman (1997), *Revelations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논저

고가영(2014),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뿌리 없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의 전쟁」, 『역사 문화연구』 4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노경덕(2024), 「냉전의 기원: 21세기 연구의 성과」, 『인문학술』 12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N. A. 세마쉬코(2017), 신영전·신나희 역, 『소련의 건강 보장』, 건강미디어협동조합.

Ваксберг, А. И. (1995), Сталин против евреев: секреты страшной эпохи, М., Liberty Publishing House.

Есаков, В. Д., Е. С. Левина (1993), Дело «КР». Из истории гонений на советскую интеллигенцию. // Кентавр no. 2, 3.

Костырченко, Г. В. (2003), Тайная политика Сталина: власть и антисемитизм, 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Boterbloem, Kees (2004), *The Life and Times of Andrei Zhdanov, 1896-1948*,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Brandenberger, David (2002), *National Bolshevism: Stalinist Mass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Modern Russian National Identity, 1931-195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urton, Chris (2000), "Medical Welfare during Late Stalinism: A Study of Doctors and the Soviet Health System, 1945-53", Ph.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Cueto, Marcos, Theodore M. Brown, and Elizabeth Fee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iduk, Ilya V. (2012), *Divided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United Nations, 1945-1965*,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Jacobson, Harold K. (1963), *The USSR and the U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South Be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Jarovsky, David (1970), *The Lysenko Affai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yakhovsky, Vladimir (1984), *Russian Doctor*, New York: St. Martin.

Kojevnikov, Alexei (2000), "Games of Stalinist Democracy: Ideological Discussions in Soviet Sciences, 1947-52", *Stalinism: New Directions* (Ed. by Sheila Fitzpatrick), London: Routledge.

Kremontsov, Nikolai (1995), "The 'KR Affair': Soviet Science on the Threshold of the Cold War",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17, no. 3.

Gaddis (1997), *Stalinist Sc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ddis (2002), *The Cure: A Story of Cancer and Politics from the Annals of the Col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ffler, Melvyn and David S. Painter (Eds.) (1994), *Origins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London: Routledge.
- Osakwe, Chris (1972),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Union in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Political and Legal Analysis of Soviet Strategies and Aspirations inside ILO, UNESCO and WHO*, Leiden: A. W. SIJTHOFF.
- Pollock, Ethan (2008), *Stalin and the Soviet Science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stein, Alvin Z. (1964), *The Sovie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1953-6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piro, Leonard (1960),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 Slezkine, Yuri (2004), *The Jewis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ulman, Marshall D. (1965),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New York: Atheneum.
- Swayze, Harold (1962), *Political Control of Literature in the USSR, 1946-195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omoff, Kiril (2006), *Creative Union: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Soviet Composers, 1939-195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indholz, George (1997), "1950 Joint Scientific Session: Pavlovians as the Accusers and the Accused",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33, no. 1.
- Zajicek, Benjamin (2009), "Scientific Psychiatry in Stalin's Soviet Union: The Politics of Modern Medicine and the Struggle to Define 'Pavlovian' Psychiatry, 1939-1953", Ph.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2024년 7월 2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Rethinking the Soviet Union's Withdrawal from the WHO in 1949

Roh, Kyung Deok*

This paper seek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the Soviet Union'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WHO. Previous scholarship has predominantly highlighted the influence of the Cold War, during which Moscow and Washington were frequently at odds over various issues.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Soviet withdrawal was more intricately linked to its domest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than to the international Cold War context. The year 1949 represented a peak period when Soviet politicians' preoccupation with secrecy, coupled with heightened patriotic sentiment among Soviet citizens following the KR affair, profoundly impacted the political and social landscape. Soviet policymakers, such as Zhdanov and Stalin, exhibited heightened sensitivity to the potential exfiltration of their academic and medical knowledge, as well as the potential infiltration of Western academia on their intellectuals. To those political leaders, the WHO was increasingly perceived as an arena where both threats could materialize.

Keywords Soviet Union, WHO, Zhdanovshchina, Stalin, KR affair, Secrecy, Soviet patriotis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